



가독

## 노동과 휴식

### 이상진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

- 
- 

5월 1일은 세계노동절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 쟁취 파업에서 유래가 되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이미 건강을 해친 후 몰아서 쉰다고 해서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최근 노동시간 개편안 즉, 정부의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정책을 두고 게임, IT업계 노동자가 '공짜 야근, 포괄임금' "살려주십쇼"라고 한 말이다. 그렇다. 쉽지는 않은 노동은 지속 가능하지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극도로 고도화된 한국산 자본주의에서의 참담한 노동현실은 설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나는 배달 라이더로 밥벌이하는 플랫폼 노동자다. 건당 수수료 3000원을 벌기 위해 죽음의 질주를 한다. 코로나 시기 배달시장이 확장되면서 많은 노동자가 유입되었고 50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4대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소득세를 내고 1인 사업자로 둔갑되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살아간다. 평균 12시간은 기본이며, 12시간 이상을 일하기도 한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특성상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고, 편의점 앞이나 나무그늘 아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실정이다. 우리에게 주 52시간도 그림의 떡이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기 위해 '안전배달료'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잠자고 있다.

얼마 전 건설업에 종사하는 마루 시공 노동자의 과로사가 언론에 보도되며 그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목을 받았다.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로 20년 동안 동결된 저임금에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하루 13시간, 주 80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했다. 휴게시설은커녕 휴식시간도 없었고 맡은 일을 그날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속칭 (돈내기) 관행이다. 죽으라 일을 시키니, 진짜 죽는다. 그들에게 휴식은 사치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알려지지 않은 소외된 계층의 노동자가 너무 많다. OECD 자살률 1위, 과로사 1위, 노인빈곤율 1위, 저출산율 1위, 중대재해사망률 1위,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이다. 오늘도 그들은 외치고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고! 🌿



† 이달의 기도 지향 : 모든 노동자가 일하고 여가를 즐기며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신명 5,14)

김진호 바오로 신부 해운대성당 |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한참 전에 합의에 도달한 줄로 생각했던 사람의 휴식에 관한 문제가, 2023년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기존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노동자들이 연간 몇 차례는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휴식권 보장에 관한 우려를 예측했는지 보완책으로 연장근무한 시간을 추후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지만 그마저도 실현이 어려운 정책임을 현장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Gwarosa(과로사)’를 고유명사화하며 한국 노동현장의 병폐로 지적하고 있었으니, 해당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주장 또한 낯부끄럽게 느껴집니다. 19세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역사의 진행과 함께 수호되고 있는 가치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를 지켜보며 제가 어느 시대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정형화된 사회교리의 출발점,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반향으로 작성·반포되었습니다. 하나는 산업혁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의 등장이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또한 산업혁명으로 빚어진 사태들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니, 이 회칙의 반포 배경은 사실상 산업혁명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물질 세계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윤리 의식은 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휴식을 제한하면서도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했고, 그 노동에 대한 임금마저 정당하게 책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소자들도 같은 대우를, 때로는 더 혹독한 대우를 받으면서 급기야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휴식에 관한 문제는 시작부터 사회 교리의 중요 어젠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칙 「새로운 사태」는 국가가 인간의 영적인 보화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노동자가 가진 많은 것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으뜸가는 것이 영적 보화이다”(「새로운 사태」, 30항). 회칙은 휴식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무에 속한 것이며, “종교와 결부된 휴식은 인간을 노동과 일상 생활의 업무로부터 해방시켜 천상 보화에 유념하게 하고 하느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도록”(같은 항) 해 주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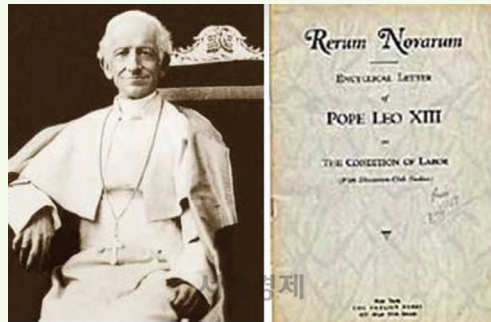
명하고 있습니다. 휴식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휴식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284항 참조).**

회칙은 동시에 휴식이 인간의 한계를 존중하는 장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노동으로 정신이 무디어지고 육신이 꺾진해지도록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의도 인간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인간의 활동은 훈련과 실행을 통하여 촉진될 수 있으나, 이는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때에 한해서 그러하다”(「새로운 사태」, 31항).**

필요한 만큼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은 성공적인 수치들을 보장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그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만큼의 해악을 함께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자본과 노동을 마치 인간 사회의 목적처럼 느끼게 하지만 그것은 모두 수단일 뿐, 진정한 목적은 사람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오가는 갑론을박을 바라보던 중, 언젠가 방송에서 보았던 검사의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검사들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였습니다. 야근은 당연한 것이고 주말근무도 일상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은 그러한 처지를 묵

묵히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희생(?)에 자부심까지 갖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 그제야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검찰 출신들이고 그들 입장에선 그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들에게 품위는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잊은 듯합니다. 인간의 품위는 로봇처럼 고도의 지적 노동을 씬 없이 이어갈 때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때 지켜진다는 것ですよ. 🌿



# 누가 죄인인가 - 지하철 투쟁으로 본 장애인 권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달보기 운동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외치며 22년을 살아왔다. 우리가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 시민을 볼모로 잡는 불법분자들이라 하지만 우리는 단지 비장애인과 같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할 뿐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과 언론은 손가락질만 한다. 전장연의 목소리는 ‘달을 함께 봐 달라’는 것이다.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욕설이 낫다. 고통은 끝이 있지만 무감각과 무관심은 끝이 없다. 관심이 생기면 부정적인 욕이라도 긍정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의 선함이 있고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의 운동의 시작



우리나라에 1960년대 처음 복지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법은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방식이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장애자의 날’이 생긴 후, 88년 민주화 운동의 가운데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자 장애인들도 권리를 주장하며 명동성당 앞에서 시위했던 것이 바로 장애인의 조직화된 최초의 투쟁이었다. 이후 ‘장애인 등록제’와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며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바뀌고 복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비장애인으로 살다 해병대를 제대한 지 8개월 만에 행글라이더가 떨어져 83년 24살에 척추장애를 입었다. 절망한 나에게 어머니는 5년 동안 매주 교회를 보냈다. 지하철도 버스도 못 타 형이 휠체어를 올리고 택시를 태워 교회에 간 게 외출의 전부였다.

## 이동권 투쟁 - 지하철을 타자

1984년 1급 지체장애인 김순석씨가 길의 턱을 없애달라고 유서를 남기며 음독자살했다. 이것이 최초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2001년 1월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KS검증도 없이 설치된 리프트 추락 사고로 70대 장애인 할머니가 숨졌다. 이 사건으로 그해 2월 서울역 지하철 철로 점거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역사의 정면에 서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한 이동권 투쟁의 서막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를 보면 월 5회 미만 외출하는 장애인이 70.5%로, 나만 한 달에 네다섯 번 외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애인 대중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 장애인 권리예산

이동권 투쟁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권리예산 중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 예산이다. 예산의 목표는 관계의 변화다. 우리 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키자는 이야기다.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려면 1:1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15억 정부 예산으로 10개 도시에 6개월간 일일 2시간을 지원했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24시간 지원된다. 현재 요구하는 예산 1조 3천억 중 1조 2천억 원이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으로, 작년 말 여야가 합의했기에 통과되길 기대했지만 국회는 0.8%만 통과시켰다. OECD 경제 10위의 나라에서 OECD 꼴찌의 장애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장애인의 40%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93년부터 내가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들은 성인인데도 대부분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다. 한 학생은 활동지원서비스가 없어서 스물두 살에 처음 노들야학에 나왔다고 했다. UN장애인 권리 장전에서 ‘장애인이 지역에서 온전히 같이 살 수 있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라’는 지적에 시설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견도 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이견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 생각하지만 그 논쟁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 T4 비밀작전

“자신을 위해 싸울 힘이 없다면 살 권리도 없다. 7만 명의 장애인을 제거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히틀러는 1929년 이렇게 말했다. 나치는 1939년도부터 41년까지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에 대한 실험’인 ‘T4 작전’을 시행했다. 아이들부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약 30만 명을 학살했다. 이후 학살은 600만 유태인의 학살로 연결된다.

2023년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가? 중증장애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죽어가는 장애인의 존재는 무엇인가. 당시 독일의 포스터는 ‘당신은 지금 장애인을 부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지금 기획재정부는 대놓고 얘기한다. ‘우리 세금 1조 7천억이 든다.’ 중앙 정부는 하루 16시간만 지원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13만 명은 지방예산을 더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더 만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다. 시설은 수용이 아니라 ‘보호’라지만 한 방에 평균 4.7명에서 많으면 20명까지, 평균 18년을 사는 것이 적절한다.

### 열차 타는 사람들

202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처음으로 오전 7시 반에 국회 앞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지하철을 탔다. 그때부터 22년 12월 2일까지 47번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 승강장에서 2021년 12월 6일 시작해서 355일째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출근길 시민들의 욕설이 난무하고 경찰들과 직원들까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누구도 자신의 권리, 시민의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고 떳떳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세상을 향한 투쟁이다. 🌿

2023년 4월 17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고은영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 주님 안에서의 기쁨


이상경 베드로 신부 우동성당

토요일 아침이 되면 설렘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까?’ 강론 원고도 다시 정리해 보고, 오늘 주일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점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주섬주섬 컴퓨터와 아이패드, 사목수첩을 학교 가는 학생처럼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제관 문을 나서며 짧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서 회의하고, 올라가 교리실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 주간이 너무 즐거워서 행복한 아이, 한 주간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아이, 그저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신부님도, 선생님도 본체만체하는 아이... 우리도 아이들처럼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에 설레는 마음으로, 때로는 지쳐있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가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례자 요한의 삶’을 묵상해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언하였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겸손은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요한 1,27).”라는 그의 언행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명성은 유다 전역에 퍼졌고, 유다 지역을

넘어 갈릴래아까지 퍼져 나간 인물입니다. 세속의 모든 권력을 지고 있는 왕마저도 세례자 요한에 대한 존경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셔야 할 분을 늘 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소나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고민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친히 뽑아 세우셨으며,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기쁨의 첫째 조건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삶의 중심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충만한 의미를 주는 빛이십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아는 데서 나오는 내적 기쁨이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라 불리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또 하루를 맡기며, 주님 안에서 나도 기뻐하고, 내가 만날 모든 이웃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보기를 소망해봅니다. 

# 오늘도 서둘러 집을 나서는 당신에게

## 「블레즈씨에게 일어난 일」

라파엘 프리에 글, 줄리앙 마르티니에르 그림, 이하나 옴김, 그림책공작소, 2020.

김희영 세레나 천사네 청년분과

월요일부터 금요일. 노동에 파묻혔던 일주일을 뒤돌아본다. 사무실을 빼곡히 채운 말과 말들,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기, 밀리는 업무 지시와 쌓여가는 결재 서류... 하루 8시간(이상)의 노동과 그 이면에 누적된 피로를 달랠 길이 없다. 정시 퇴근과 야근 없는 저녁의 당연함마저도 눈치 보는 현실이다. 탈출구 없는 일상에 지친 이들을 향해 그림책 『블레즈씨에게 일어난 일』(2020)은 서늘한 질문을 건넨다.

출근 전 면도하는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보는 장면인 표지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면지 뒤의 장면은 앞의 그림의 구도와 구성이 같지만, 면도날에 찢리는 순간을 더욱 살려 표현한다. 어쩐지 다가올 균열을 예고하는 듯 말이다.

직장인 블레즈씨의 일상도 5일 내내 빼곡하기 그지 없다. 집 외벽을 수리하는 일도, 고장 난 차를 정비할 여유도 없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그러다 닥친 큰 걱정거리 한 가지가 이런 일상을 더욱 끔찍하고 짜증 나게 한다. 웬걸, 블레즈씨의 발에 수북한 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고민으로 하루하루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을 잊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며 일에 집중한다.

온몸이 털로 뒤덮여 가더라도 어쨌든 출근은 해야 한다. “하지만 어쨌든 회사에는 가야 하니까.” 점점 곰처럼 변해가도 내일이면 괜찮을 거라 되뇌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아무리 외면해도 자라는 털을 멈추게 할 순 없다. 결국 금요일까지 버티다 마침내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을 때, 그는 곰으로 변해있었다. 그 뒤로 블레즈씨는 깊은 무의식을 건드렸던 내면의 욕망대로 움직

인다. 회사가 아닌 숲으로 가고 만 것이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그는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타며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도 매몰된 일상에 치여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아닐까. 반복된 하루를 버텨보지만, 마음을 살펴볼 여유조차 없다. 내 마음을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열어 보인 적은 있었을까. 그러니, 무의식을 지배하는 마음속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이다. 물론, 퇴사나 이직을 강권하거나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좇아 훌쩍 떠나라는 말을 건네기에는 조심스럽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부터 챙겨보면 어떨까.

1인 가구인 블레즈씨에겐 방을 가득 메운 반려식물과 작은 곰인형만이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우리에게 간청과 하소연(집회 35,17)까지도 들어주시는 주님이 늘 곁에 계시지만, 삶이라는 굴레에 파묻혀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 “이곳은 안식처이니 고달픈 이들을 편히 쉬게 하여라. 이곳은 쉼터이다.”(이사 28,12) 노동을 벗삼되 균형 잡힌 안식을 열망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기도 안팎으로 메아리치고 있다. 기도를 통한 외침이 자유로 열매 맺어, 지친 우리 마음까지도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



## 균형 잡힌 삶 : 성 베네딕투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우리의 삶은 상반되는 것이 서로 협력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과 ‘휴식’ 또한 이와 같습니다. 노동으로부터 주어지는 휴식은 하나의 ‘권리’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휴식의 중요성이 더해질수록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과는 다르게 최근 한국에서는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외신은 한국을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의 나라”로까지 소개하며, “쉽과 병행되지 않은 노동 환경은 높은 자살률, 저조한 출산율 등 ‘공공보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3월 22일 NBC방송) 실제로 2022년 통계청 발표자료(10월 5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노동을 하는 나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 근로자보다 1.4배 566시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노동환경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일”(Ora et Labora)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성 베네딕투스(Benedictus, 480/90 -555/60)의 삶과 가르침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딕투스 성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늘 균형과 절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중용의 사부’라고 불립니다. 그

의 가르침은 언제나 성경과 교부들의 전통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용의 정신으로 종합하고 정리하여 삶에서 실현 가능한 규칙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베네딕도 규칙서』Regula Benedicti입니다.

성인께서는 ‘몸’과 ‘마음’과 ‘정신’의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규칙서를 통하여 수도원의 일상생활을 ‘기도’와 ‘노동’ 그리고 ‘휴식’(잠)으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 수도승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베네딕도 규칙서』에 따르면, 수도승은 하루에 7-8시간 기도하고, 6-7시간 육체노동을 하며, 그리고 7시간 잠을 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칙서는 기도와 노동과 휴식이라는 ‘균형 잡힌 삶’을 통해, 건강하고 맑은 신심으로 하느님을 찾으라는 삶의 지침서이 기도 합니다.

*부활절부터 10월 1일까지(농사철에는) 아침에 <제1시기도>를 끝낸 다음 제4시(오전 10시)까지 필요한 노동을 하고, 제4시부터 <제6시기도>후에 식사를 마치면 자기 침대에서 완전한 침묵 중에 쉬 것이지만, 만일 누가 혼자 독서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제9시기도>는 좀 당겨서 제8시 반에 하고, 다시 <저녁기도>까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베네딕도 규칙서』, 48.☞*





## 노동과 휴식을 통하여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 25항 참조)

1890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루 12-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결국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자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입니다. 교회는 노동자의 권리와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사목 헌장 67항)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휴식을 하면서 하느님을 닮아가야 합니다”(「노동하는 인간, 25항). 인간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완성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성은 노동만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가 가운데 예배와 봉사, 가족과 사회 공동체와 일치함으로써 비로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인간에게 휴식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일치와 완성을 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어머니 요스승, 250항 참조).

그러나 우리의 노동현실은 노동을 하여도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휴식과 여가는 ‘사치’로 여겨집니다. 노동 시간은 노동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 보건 기구(WHO)와 국제 노동 기구(ILO)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74만5천 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집중-장시간 노동’의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은 ‘과로 사회’ 그리고

“죽음의 문화”(「생명의 복음, 12항)를 부채질할 뿐입니다. 인간 노동은 ‘생존 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일구고 돌보는 노동’(창세 2,15 참조)입니다. 장시간-저임금의 높은 ‘생존 노동’을 권하는 세상은 사회를 ‘노예 사회’로 만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노동자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탈리아 건설 협회 대표단에게 한 연설, 2020.1.20.)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휴식권 보장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백주년, 34항 참조). 정부는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래 구조와 다양한 방식의 중간착취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휴식과 노동의 조화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돌봄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교회의 형제적 연대로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더 합당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노동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동료인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소서.

2023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전문

##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4월 아세미는 부활대축일로 인해 한 주 연기하여, 4월 17일 가톨릭센터 3층에서 봉헌하였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9주기를 기억하고 10.29이태원참사를 추모하며, 22년간 장애인 차별철폐와 권리를 위해 힘써온 박경석 상임대표(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평위는 소외된 이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진실버스 부산일정

4월 1일(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을 요청하며 전국 순회 진실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정평위(천주교)는 2박 3일간 유가족의 일정을 도우며 비통한 이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목소리 ‘이기열 선생’의 증언

4월 15일(토/15:00)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정의평화위원회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5개 단체가 주관한 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기열 선생은 일제 강제징용된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던 해(1945년)에 피폭되었습니다. 78년 평생을 호흡기질환 등 고통 속에 살아왔고 이제 그 고통은 2~3세대로 유전되었는데도 일본과 우리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실태파악이나 의료혜택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한 삶을 기도합니다.



### + 고리2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4월 8일(토/11:00) 고리본부 앞에서 ‘고리2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영구정지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핵진흥정책에 따라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엉터리 부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요식행위 공람, 공청회 강행 등 시민의 안전과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정평위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과 주민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핵폐기장을 반대합니다.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저지 기자회견

4월 13일과 4월 20일(11:00)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영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어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사능오염수의 해양투기는 현재와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안고 있는 핵발전정책을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

##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16일 ~ 2023년 4월 17일)

강운자 강인순(2) 강정웅신부 강해용 고은영 권성일(2) 권중희(2)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숙 김귀애 김서현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종경 김진우신부 김진호신부 김천일신부 김흥기 나경문(2) 류창훈신부 류형숙(2) 맹정은 밀알사제단(2) 박종민신부 박준철 박위옥 배미희 법무법인민심 법무법인부산 변지혜 부산교구빈터 사제단 서경혜 손석호 손선주 송석희(2) 신정금 심서경(2) 심재영 아리 양정애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상애 이소라 이영복 이우형 이윤호 이정기 이정은 이춘자 이형규 임정옥 장원창 전나미 전동묵신부 전윤희 전태일 정성근 정중태 정성호신부 정혜원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조윤아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상국 최수련 최우인 최재경 최혁신부 하민진 하희설 허채현 황수엽 황진 익명

| 원고 후원 | 고은영 김아영 김현신부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정부원신부

##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 농협 301-0465-9508-21
  -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업비로 사용되며,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이나 신규로 후원하신 분은 꼭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소성리 평화 미사

- ▶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14시 미사
- ▶ 장소: 소성리회관 앞 천주교 상황실
- ▶ 출발: 사상기차역 앞 공터 9:50 까지 집결  
승합차 이동 (10:00~18:30)
- ▶ 참가비: 무료(점심 각자 해결)
- ▶ 신청마감: 6월 12일 까지 선착순 마감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1-465-9508)

2023년 5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핵보유와 군비 강화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 군사전문가, 현 정의당 한반도평화위원장)

일시/장소

부산 가톨릭센터 3층

2023.05.08(MON) 19:30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051-465-9508

미사와 무료 강의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찾아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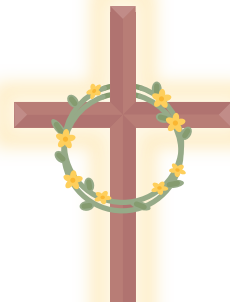
# 더 나은 정치와 사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부 정치인들의 실수, 부패, 무능 때문에 흔히 정치를 불쾌한 표현으로 여깁니다. 또한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경제로 대체하려 하거나, 하나의 이념이나 다른 이념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없이 우리 세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올바른 정치 없이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 평화를 향한 효과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모든 형제들』 5장)



- 일 시 2023년 4월 27일 ~ 5월 11일(3주간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대 상 관심 있는 누구나
- 수 강 료 3만원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인, 수도자 : 2만원)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입금 시 "이름+사회" 표기 (예: 홍길동사회)
- 신청하기 4월 24일까지 <https://url.kr/qlowb9>
- 문의 051-465-9508, [busanjustice@naver.com](mailto:busanjustice@naver.com)



날짜	강좌명	강사
4월 27일	공동선을 위한 정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서울대교구)
5월 4일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본 자유와 민주주의	
5월 11일	정치와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기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mailto: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cs.co.kr](http://busanjustice.pbcbcs.co.kr)